

불자 세상보기



법현 스님
前 대교총 부원장
열린선원원장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탈리아 속담이다. 순수이성 비판의 독일철학자 칸트(1724~1804)는 벗 니콜라우스와 우정을 잘 가꾸기로 약속하였다. 그의 아들인 니콜라우스 2세가 제자가 되어 배우기 시작하자 칸트는 꿈을 물었다.

책방을 운영하고 싶다 하자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가 졸업하고 가게를 내자 칸트는 낮은 책 발행세(인세)를 받고 밀어주었다. 살아있을 때부터 유명한 학자인 칸트에게 일류 출판사에서 계속 제의가 들어왔다. 비싼 인세를 줄테니 판권을 달라는 것을 마다하고 계속 벗의 아들에게 주었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도 처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다름이 끊어질 않는다. 상대방이 어긴 약속을 기억하고 화가 나며 잃어버린

이익을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동지 간에도 다름이 있고 형제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며 부자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이 욕심세상(欲界)의 보기 싫은 모습이다. 역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의 아픔이다. 많은 기업가들이 불행하게 죽거나 아픈 다름을 하는 것도 우리네 상처이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시간이나 처지가 달라지면 그것 또한 달라지리라 생각하면 그만일 수도 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에게 임금이 말했다. 연주가 훌륭하니 끝난 뒤에 천금을 선물로 주마고. 악사는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연주했고 아주 훌륭한 음악회가 되었다.

연주를 마치고 악사가 약속대로 천금을 달라고 임금에게 말하자 임금은 나도 너처럼 네 귀를 즐겁게 해 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백유경』에 나온다. 악사도 그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니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지키는 약속이 더 아름답다.

심사왕(心師王)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네 왕비를 사랑하여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셋째 왕비를 특히 사랑하여

그녀가 낳은 바라타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나머지 왕비의 아들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부왕이 결정한 일이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일이 살았다.

바라타는 세 형제들을 찾아가 함께 살자고 진심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나머지 왕자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어기는 것은 불효이고 다른 생각이 없으므로 그냥 여기에 살다니 나라나 잘 다스리라며 따르지 않았다.

어쩔 수없이 바라타는 형제들의 신발이라도 기념으로 달라고 하여 가져왔다. 옥과 위에 올려놓고 아침저녁으로 형님들처럼 생각하고 절을 하며 열심히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퍼져 감동한 형제들이 돌아왔다.

서로 왕위를 양보하느라 실랑이를 잠깐 하였으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고 속뜻까지 이해한 사이였으므로 좋은 결론이 났다. 제일 맏이가 왕위를 맡기로 한 것이다. 그 나라는 아주 부강하고 평화로웠다. 『잡보장경』의 이야기다.

2003년 구세네 일가가 형성한 LG그룹에서 분기한 LS그룹은 재미있는 결정을 하였다. LS는 합심해서 경영합리화를 이룩해 전기, 전자, 에너지, 소재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재계 13위 그룹이다. 물론 그들도 구세네 일족이지만 그룹의 경영권을 첫 회장의 아들딸들에게로 내리는 일반적 관례를 벗어나 4촌 형제에게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그룹의 주식 지분이 4:4:2로 구성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지배권 행사가 필수적인 것이라.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투는 사례도 많은데 다투지 않고 화합적으로 물려주되 혈통으로만 남기지 않는 작은 본보기를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10년 만에 4촌 동생에게 물려주었으니 몇 년 뒤에 다음 세대인 4촌 동생에게 넘길지도 관심이다.

그룹 구성원들이 부처님께서 빛지고 과 관련하여 섣범하신 스러지지 않는 일곱 가지(七不衰法)의 으뜸이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바른 일에 대해 의논하는 것임을 새겨서 자기들도 좋고 종업원들과 고객들인 국민들도 좋게 하려면 한다.

조금 더 바라기는 가까운 친족이 아닌 일반 임원이나 정통 경영자 출신에게 사업 성공 외에 다른 조건 없이 물려주는 기업도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한국불교, 국민의 충고 귀담아 듣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종교가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임을 얻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시민단체(34.3%)를 가장 신뢰했고, 종교 단체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5.4%에 불과했다. 단순 수치로만 5배의 차이다.

이 같이 국민들이 종교단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재정 문제와 도덕성 실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올 한해 불교계는 백양사 승풍 실추 사건으로, 개신교계는 교회 세습 문제로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반대로 교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한 카톨릭은 상대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실제 사

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에서 불교는 역시 지난해 23.7%에서 19.1%로 하락했고, 카톨릭은 17.6%에서 24.1%로 상승해 불교를 제쳤다.

그래도 20, 30대와 어려운 이웃들이 불교를 신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로 평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국불교가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준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들이 종교에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도덕성’이었다. 청렴성과 공정성도 높게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킬 때 국민들은 종교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큰 내용을 겪은 조계종이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국민들의 충고를 되새기길 바란다.

동산반야회 30년 성장의 교훈

동산반야회가 지난 11월 10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세 번 변한다는 세월 동안 동산반야회는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재가불교운동의 일환으로 고(故) 김재일 법사가 무진장 스님을 법주로 1982년에 32명의 청년 불자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동산반야회는 30년 동안 불교기초교리강좌와 운영 등으로 교계 신행문화를 주도해왔다.

특히 동산반야회는 불교 최초의 2년 교육과정인 ‘동산불교대학’, 3년 과정의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동산한글불교의식교육원’ 등 세분화된 교육시스템을 설립하는 등 불교계 교육환경이 다양, 전문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28년 간 약 1만명에 가까운 불교인재들이 동산반야회와 인연을 맺고 불교 교리 공부에 열중했다. 특히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등 이름난 대면 고개가 끄덕여 지는 유명인사들도 상당수 문을 노크했을 정도다.

하지만 동산반야회의 업적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만 있지 않았다. 진정한 포교 불사를 위해서는 교리와 신행이 적절히 어우러진 재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998년 제 6차 열반만일회를 결성해 실천불교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산반야회는 그동안 청소년 독서실, 세계난민 구호를 위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등을 운영하며 소외된 국내외 이웃들에게 눈길을 돌려 나눔의 보시행을 펼쳤다.

또한 인도 석가족 개종사업, 한일친분가 교류, 한국불교교육단체협의회 결성, 붓다클럽 창립, 전국 호텔 객실에 불교경전 비치하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며 불멸홍포에 앞장섰다.

명실공히 재가불자교육의 1번지로 학교 히 자리매김한 동산반야회.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을 향해 비상해 주길 바란다.

동산반야회의 성장은 곧 한국불교 재가자들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갈림



윤범모
미술평론가
가천대 교수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 도처의 사찰에서는 망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우 반가운 소리였다(고 믿고 싶다). 과연 그랬던가. 무엇보다 우리는 반성의 시간부터 챙기게 한다. 불사, 과연 진정한 불사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불사라는 이름 아래 가람을 새롭게 일구는 공사 현장을 줄기차게 보아왔다. 한국 사찰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고, 망치소리는 종단을 물랐다. 정말 눈부신 발전이었다(라고 믿고 싶다.)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여기서 우리는 불사의 현장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과연 한국 불교의 가람 조성은 시대정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불사였는가.

불행하게도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적 대답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과거지향적 불사였기 때문이다. 21세기 불사이면서 모델은 신라

시대 혹은 조선시대로 되돌아가 흥내 내기에 급급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20세기 가람 조형물은 짝퉁의 전지였다. 왜 과거의 복제를 만족했을까. 어느 시대대건 가람은 당대 최고의 미술작품을 지향했다. 예술작품이라는 단어는 창의성을 동반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독창성이 결여된 작품은 진정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토함산 석굴암 역시 당대 최고의 실형 미술작품이었다. 창의와 모범이었다는 의미이다. 시대정신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작품만이 역사에 남는다.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반듯이 돌아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람, 시대적 소명이지 않을 수 없다.

강화도 정족산 전등사는 최근 무실전을 신축하면서 새로운 불사의 범본을 보여 주목 받고 있다. 전통사찰이라는 가람의 전체적 분위기는 살리면서 비탈진 언덕의 지하에 커다란 공간을 만들었다.

외형적으로는 건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부는 현대인의 정서에 부합되는

다목적 공간을 신축했다. 무실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전등사의 장운 회주 스님 이하 사부대중은 새로운 불사를 위해 무엇보다 대학에서 재직중인 전문가를 초청했다.

하여 한국 가람 불사의 현장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역 미술가 중심의 ‘무실전 창작단’을 구성했다. 창작단에 동참한 작가는 불사의 김영원 흥대교수, 불화의 오원배 동국대 교수, 공간 디자인의 이정교 흥대교수, 그리고 기획 및 출판 담당으로 필자가 의기투합했다.

무실전 신축에 참여하면서 창작단이 고려한 사항은 이런 것이었다. 무엇보다 다목적 공간을 지향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한마디로 무실전은 범람하면서 미술관 혹은 교실이면서 예식장을 지향했다.

무실전에서 범람과 같은 불교 행사 이외 대중 강연, 음악회, 시낭송회 같은 행사 개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출입구 부분의 서운 갤러리는 현대미술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어 글자 그대로 예술공간이기도 하다. 무실전은 청소년을 비롯 불자 이

외의 일반인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석사모니 주불을 비롯 4대 협시보살과 1천 원불은 모든 색을 수용하는 백색 도료로 마감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이들 불상은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신채 비례와 친근미를 추구했다. 예배용으로서의 존엄과 더불어 조형성을 가미하여 우리 시대의 불상으로 재탄생한 ‘작품’인 것이다.

후불 벽화는 서구의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된 바, 이같은 사례는 국내 초유의 일로 기록된다. 공간 디자인은 무실전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꼽힐 부분이다. 천정의 연등 디자인은 저작권을 앞세울 정도로 제작된 작품이다. 무실전은 출입구로부터 갤러리 공간 그리고 신행 공간에 이르기까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한 21세기형 가람 불사임을 특기하게 한다.

우리는 전환점에서 서 있다. 아니 전환점을 반듯이 돌아야 한다. 한국 사찰의 불사 현장에서 꼭 거론되어야 할 화두이다. 시대정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불사는 이제 부끄러움의 덩어리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짝퉁 불사’의 전환점을 촉구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 (영) 글쓴이: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MSM Glucosoid & Omega3 Cream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로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120ml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때가 많으니까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능 효과 ◎
▶ 잇몸질환 예방 ▶ 구취 제거
▶ 치주질환 예방 ▶ 시린 이 개선
▶ 충치예방 ▶ 미백효과
▶ 치태제거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